

2023

목회자 구속사 하계대성회

강 / 의 / 노 / 트

아브라함의 구속 경륜을 깨닫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자
Let Us Understand God's Redemptive Administration for Abraham and Be Blessed with Him

창 Gen 12:1-4, 롬 Rom 4:16-24, 갈 Gal 3:7-9

2023년 8월 14일(월) AM 9:40 - PM 4:00
유튜브 실시간 온라인 중계

구속사 시리즈 제7권
「영원한 만대의 언약 십계명」 특강

09:40-10:00 내주께 찬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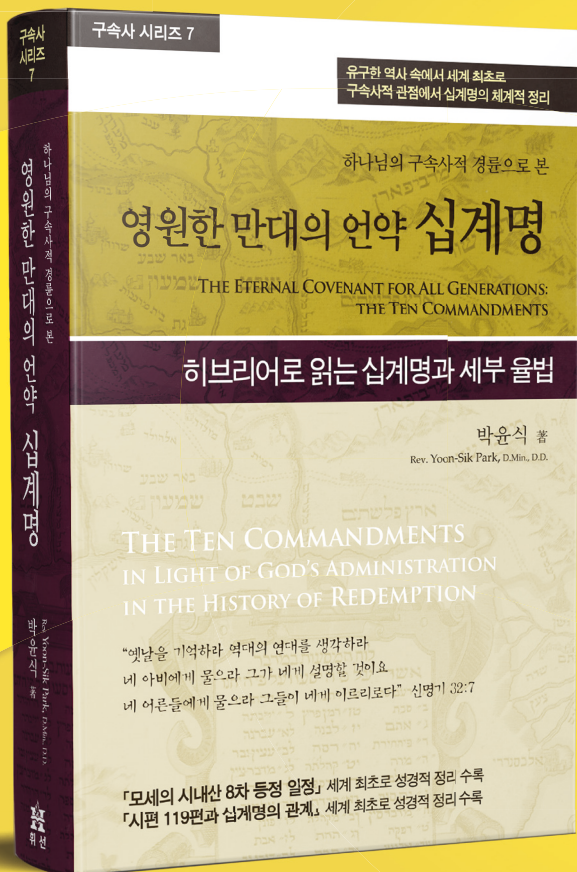
10:00-10:50 강의 1 | 정유진 선교사
모세의 8차례 시내산 등장(출 19:1-3)

11:10-12:00 강의 2 | 정정원 목사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니이다(시 119:160)

13:40-14:00 내주께 찬양

14:00-14:50 강의 3 | 변제준 목사
만대의 언약 십계명 - 대신계명(출 20:1-11, 요 14:7)

15:10-16:00 강의 4 | 이옥경 선교사
만대의 언약 십계명 - 대인계명(출 20:12-17, 마 22:36-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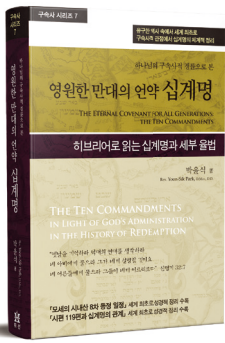
2023
목회자 구속사
하계대성회

강 / 의 / 노 / 트



대한예수교장로회

평강제일교회



강의 1 | 정유진 선교사

모세의 8차례 시내산 등장

출애굽기 19:1-3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삼월 곧 그 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²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³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모세는 총 8차례에 걸쳐 시내산 꼭대기를 오르내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 시내산 언약을 맺었습니다.

1. 시내산으로 부르신 하나님

(1) 시내산 이름에 담긴 구속경륜

① 시내산 : ‘가시나무 숲, 떨기나무 많은 곳’

가시나무는 타락한 인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사무엘하 23:6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 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② 호렙산 : ‘건조한 곳’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건조한 황무지와 같습니다.

이사야 62:4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험시바라 하며 네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서는 타락하여 가시나무 같은 우리 인생들, 황무지같은 우리 인생들을 좋은 땅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2) 시내산으로 부르신 목적: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출애굽기 3:12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3) 시내 광야에 도착한 날짜

출애굽기 19:1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삼월 곧 그 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제삼월”(שְׁלִישִׁי חֹדֶשׁ הַשָּׁנָה, ‘바호데쉬 하셀리쉬’)은 월삭(각 달의 첫날)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주전 1446년 3월 1일에 시내광야에 도착한 것입니다.

2. 시내산 등정의 일자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3/2(월)	3/3(화)	3/5(목)	3/6(금)	3/7(토)	3/8(일) ~4/17(목)	4/18(금) ~5/28(화)	5/30(목) ~7/10(월)
언약체결 제의 출 19:3-6	3일간의 성결 명령 출 19:8-15	시내산 입산 금지령 출 19:16-25	십계명과 율법 선포 출 20:1-24:2, 신 5:1-6:3	언약체결식 과 기념식사 출 24:3-8 출 24:9-11	1차 40일 금식기도 출 24:12-18, 신 9:8-14	40일 중보기도 출 32:30-35, 신 9:25-29, 10:10-11	2차 40일 금식기도 출 34:1-28, 신 9:18, 10:1-5

제1차 등정 하나님의 시내산 언약체결 제의

(1) 제1차 입산: 3월 2일(월)

출애굽기 19:3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2) 제1차 하산: 3월 2일(월)

출애굽기 19:7-8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⁸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와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제2차 등정 백성들을 성결케 할 것을 명령

(1) 제2차 입산: 3월 3일(화)

출애굽기 19:8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와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3일 성결기간: 3, 4, 5일

출애굽기 19:10-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¹¹ 예비하여 제삼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삼일에 나 여호와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2) 제2차 하산: 3월 3일(화)

출애굽기 19:14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제3차 등장 시내산 입산 금지령

(1) 제3차 입산: 3월 5일(목)

출애굽기 19:16 “제삼일 아침에 우뢰와 번개와 뽁뽁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출애굽기 19:20-21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 가매 ²¹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2) 제3차 하산: 3월 5일(목)

출애굽기 19:25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제4차 등장 십계명과 율법 선포

→ 십계명 선포 : 3월 6일(금) 아침 제4차 입산 직전 = 출애굽 후 50일째

출애굽기 20:18-19 “뭇 백성이 우뢰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불 때에 떨며 멀리 서서 ¹⁹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신명기 5:22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신명기 18:16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 산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1) 제4차 입산: 3월 6일(금)

이스라엘 백성이 음성으로 십계명을 받고 나서, 모세가 혼자서 산에 올라가서 세부율법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0:21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2) 제4차 하산: 3월 6일(금)

출애굽기 24:3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제5차 등장 언약체결식과 기념식사

→ 언약체결식: 3월 7일(토)

출애굽기 24:4 “모세가 여호와와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십이 지파대로 열 두 기둥을 세우고”

출애굽기 24:7-8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와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⁸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1) 제5차 입산: 3월 7일(토)

출애굽기 24:9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칠십 인이 올라가서”

(2) 제5차 하산: 3월 7일(토)

언약체결의 기념식사를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출애굽기 24:11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제6차 등장 1차 40일 금식기도

(1) 제6차 입산: 3월 8일(일)

출애굽기 24:12-1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¹³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출애굽기 24:18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사십일 사십야를 산에 있으니라”

신명기 9:9 “그 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 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사십 주야를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2) 제6차 하산: 4월 17일(목)

출애굽기 32:15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 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① 이스라엘의 행음 : 금송아지 우상숭배

출애굽기 32:1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듬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②모세의 중보기도

출애굽기 32:13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출애굽기 32:14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③깨뜨려진 두 돌판

출애굽기 32:19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 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제7차 등장 40일 중보기도

(1) 제7차 입산: 4월 18일(금)

출애굽기 32:30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출애굽기 32:31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출애굽기 32:32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주옵소서” => **생명을 담보한 모세의 중보기도**

신명기 9:25 “그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사십 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2) 제7차 하산: 5월 28일(화)

출애굽기 33:5-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음이라 ⁶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3) 임시 회막 기도 : 5월 29일(수)

출애굽기 33:7-8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처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8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출애굽기 33:13-14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14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1) 제8차 입산: 5월 30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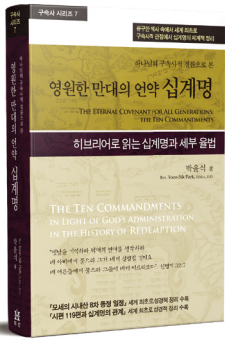
출애굽기 34:4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출애굽기 34:28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사십일 사십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2) 제8차 하산: 7월 10일(월) = 대속죄일

출애굽기 34:29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출애굽기 34:32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강의 2 | 정정원 목사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입니다

시편 119:160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마태복음 22:38-40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십계명은 원어적으로 열 말씀들이며, 시편 119편에서는 말씀의 본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160의 ‘강령’(綱領)은 ‘벼리 강, 거느릴 령’으로 ‘일의 으뜸이 되는 줄거리, 정당 등의 단체에서 입장·목적·계획·방침 및 운동의 차례, 규범 따위를 요약해서 적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머리’라는 뜻의 ‘로쉬’(רֶשֶׁת)로, ‘말씀의 대표가 되는 하나하나’를 의미합니다. 연약한 인간은 말씀의 전체를 알 수 없지만, 말씀의 여러 속성을 표현하는 하나하나의 단어들은 모두 진리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는 말씀에 대해서 10가지 단어를 들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22:38-40에서는 십계명을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하여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령’은 헬라어로 ‘크레만누미’(κρεμάννυμι)로, ‘매달다, 매달리다’에서 유래하였습니다.

1. 시편 119편의 특징과 구조

(1) 시편 119편의 특징

① 답관체

시편 119편은 9편의 답관체 시(시 9, 10, 25, 34, 37, 111, 112, 119, 145) 중에 가장 으뜸으로, 최고의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33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전서 14:40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 같은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8절 : 8은 새창조의 수(창 17:12, 민 29:35, 마 28:1, 계 1:10)

창세기 17:12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무론하고 난 지 팔 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마태복음 28:1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 히브리어 알파벳 수와 같은 22연 : 알파벳 ‘알렙’(א)부터 ‘타우’(ט)까지 22자를 순서대로 사용함, 하나님의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사 41:4, 계 1:8, 21:6, 22:13)

요한계시록 22:13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 모든 알파벳을 빠짐없이 사용함 : 우리의 모든 수단과 힘을 동원해서 찬양함(왕상 8:27, 대하 2:6, 6:18, 잠 21:30)

열왕기상 8:27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②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음

시편 119편은 찬양의 유일한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성호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말씀을 가리키는 열 가지 단어가 나타나 있습니다.

골로새서 1:15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디모데전서 1:17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이다 아멘”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단어로 표현하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③ 시대와 배경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시편은 표제가 있습니다. 표제는 시를 해석하는 첫 단추입니다. 그러나 표제가 없어서 전혀 배경을 알 수 없습니다. 시편 119편이 기록된 시기는 율법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던 때임에도 불구하고, 의식이나 제사법, 바리새적 율법주의 표현들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시**

2) 시편 119편의 구조

제1연 알렙(א) 시 119:1-8	말씀을 지키는 복 있는 자 되게 하소서 ... <i>서문의 성격을 가짐</i>
제2연 베트(ב) 시 119:9-16	청년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말씀 ... <i>전치사 ‘베’ 강조</i>
제3연 김멜(ג) 시 119:17-24	나그네 길에 의지할 것은 말씀뿐 ... <i>‘가말’(גַּמַּל)은 ‘젖을 떼다, 관대하다, 섬기다’</i>
제4연 달렛(ד) 시 119:25-32	말씀을 지키는 자의 행할 길 ... <i>‘길’이라는 뜻의 ‘테레크’(דֶּרֶךְ) 강조</i>
제5연 헤(ה) 시 119:33-40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 <i>‘헤’(ה)는 숨구멍, 숨결의 의미를 가짐(사역형 ‘헤’)</i>
제6연 바브(ו) 시 119:41-48	비난과 압제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길 원하나이다 ... <i>모두 간접명령(Jussive) / 청원형(Cohortative)</i>
제7연 자인(ז) 시 119:49-56	말씀(옛 규례)를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나의 소유 ... <i>‘자카르’가 세 번이나 반복(49, 52, 55)</i>
제8연 헤트(ח) 시 119:57-64	여호와와의 말씀이 나의 분깃이라 ... <i>참으로 말씀의 분깃을 가진 자의 태도</i>
제9연 테트(ט) 시 119:65-72	고난 속에서도 항상 선하신 말씀 ... <i>‘토브’(טוֹב, 뜻 선하심)가 5번 반복(65, 66, 68, 71, 72)</i>
제10연 요드(י) 시 119:73-80	항상 말씀대로 묵상하고 살아가며 배우게 하소서 ... <i>‘손’이라는 뜻의 ‘야드’(יָד)에서 유래</i>
제11연 카프(כ) 시 119:81-88	최악의 상황에서도 오직 말씀을 사모하리라 다짐 ... <i>‘카프’(כָּפַד)는 ‘굽히다, 발바닥’(욥 2:7, 사 1:6)</i>

제12연 라메드(ל) 시 119:89-96	천지를 조성하고 나를 살게 하는 말씀 → ‘라마드’(למד)는 소물이 막대에서 나와 ‘가르치다’
제13연 멤(מ) 시 119:97-104	사랑스러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단맛 찬가 → 전치사 ‘민’(מן)은 ‘~로부터’(99, 100, 101, 102, 104)
제14연 눈(נ) 시 119:105-112	언제나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함 → ‘눈’(נח)은 ‘장구함’을 의미(시 72:17), 니팔(재귀)
제15연 싸멕(ס) 시 119:113-120	나를 붙들어주시는 말씀 → ‘싸마크’(סמך)는 ‘버티다, 지탱하다, 붙들다’
제16연 아인(ע) 시 119:121-128	말씀을 지키는 나를 보옵소서! → ‘아인’(עין)은 ‘눈’이라는 뜻(122절에만 ‘말씀’을 뜻하는 단어가 없음)
제17연 페(פ) 시 119:129-136	말씀을 열어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 ‘페’(פה)는 ‘입’이라는 뜻
제18연 짜데(צ) 시 119:137-144	의로움과 정직한 판단의 말씀 → ‘체테크’(צדק)는 ‘의’라는 뜻
제19연 코프(ק) 시 119:145-152	새벽에 말씀을 지키기를 부르짖다 → ‘카라’(קרא)는 ‘부르짖다’라는 뜻(145-147)
제20연 레쉬(ר) 시 119:153-160	나를 악인에게서 높여 주시는 말씀 → ‘로쉬’(רש)는 ‘머리, 근본, 근원’
제21연 쉰/췌(ש) 시 119:161-168	주의 말씀을 경외하고 사랑하나이다 → ‘셴’(ש, 뜻-이빨, 장검)에서 유래하여 연마하다(שפש)
제22연 타우(ת) 시 119:169-176	잃은 양 같은 나를 살리시는 말씀 → 시인의 결론은 자신을 ‘잃은 양’으로 고백

2. 열 가지 말씀의 본질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시편 119편에 ‘말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8개가 사용되어 전체 8절 구조와 대응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휘선 박윤식 목사님은 「구속사 시리즈 제7권」에서 8개가 아닌, 10개의 단어가 사용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10은 ‘만수’(滿數)로서, 시편 119편 전체의 핵심 주제가 말씀에 대한 가득한 찬사임을 강조하며, 말씀대로의 행위를 강조하는 ‘데레크’(דרך)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진실됨을 강조하는 ‘에메트/에무나’(אמת/אמונה)가 포함된 것입니다(시 119:151, 요 17:17).

일반적인 신학자들의 견해	①‘토라’(תורה), ②‘에두트/에다’(עדות/עדות), ③‘미쉬파트’(משפט), ④‘호크’(חוק), ⑤‘다바르’(דבר), ⑥‘픽쿠드’(פקוד), ⑦‘미츠바’(מצוה), ⑧‘이므라’(אמרה) → 시편 119편의 8절 구조와 대응
구속사 시리즈 제7권의 견해	⑨‘데레크’(דרך), ⑩‘에메트/에무나’(אמת/אמונה) → 말씀에 대한 가득한 찬사, 참 말씀엔 행위와 결과가 수반됨(시 119:151, 요 17:17)

1 토라(תּוֹרָה) 주의 법, 주의 율법 ... 인생이 가야 하는 길을 지시하고 가르치는 말씀

▶ 시편 119:1, 29, 38, 44, 51, 55, 61, 70, 72, 77, 85, 92, 97, 109, 113, 126, 136, 142, 150, 153, 163, 165, 174 / 25회

① 율법('토라')은 시내산에서 처음 선포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6:5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18:16-20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 ¹⁹...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²⁰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② 율법은 억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유와 평안의 법입니다.

시편 119:165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시편 119:97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③ 율법은 예수님의 증거요,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자 완성자이십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죄인임을 철저히 인식하게 되며(롬 3:20, 7:7-9, 13), 나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인이 됩니다(롬 3:28, 갈 2:16, 3:11).

누가복음 24:44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로마서 10:4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2 에두트/에다(עֵדוּת/עֵדָה) 주의 증거, 여호와의 증거 ... 확실하고 경계를 주는 공적인 증거

▶ 시편 119:2, 14, 22, 31, 36, 46, 59, 79, 88, 95, 99, 111, 119, 125, 129, 138, 144, 146, 152, 157, 167, 168 / 23회

히브리어 어원은 ‘우드’(עֵד)로 ‘둘러싸다’라는 뜻이지만, 히필형으로 쓰면 ‘경고하다, 확신을 주다, 증인을 삼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경계를 주는 공적인 증거가 됩니다.

① 하나님의 증거는 모호하지 않고, 분명하여 지혜롭게 합니다.

시편 19:7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시편 119:31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욥기 4:12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욥기 4:16 “그 영이 서는데 그 형상을 분변치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 앞에 있었느니라 그 때 내가 종용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기를”

②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증거의 실체이십니다.

요한복음 3:32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요한복음 5:36-39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³⁷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³⁸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³⁹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3 미쉬파트(משפט)	주의 판단, 주의 규례 → 법령을 근거로 한 재판, 판단, 규례(주로 대인 계명에 사용)
▶ 시편 119:7, 13, 20, 30, 39, 43, 52, 62, 75, 84(“국문”), 91, 102, 106, 108, 120, 121(“의”), 132(“베푸시던 대로”), 137, 149, 156, 160, 164, 175 / 23회	

①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정확하고 의롭게 판단하십니다.

예레미야 11:12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정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수를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시편 119:160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하나님의 판단의 의로움에 시편 119편 저자는 감탄하여 찬양하였습니다.

시편 119:164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②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레위기 18:4-5 “너희는 나의 법도(‘미쉬파트’)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⁵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미쉬파트’)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잠언 25:12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시편 141:5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의 기름 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③ 예수님의 판단은 참이자 의로운 심판 기준입니다.

요한복음 8:16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마태복음 12:1-8 “그 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²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 ⁷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⁸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으며(요 5:22, 29-30, 9:39, 행 10:42), 우리는 예외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10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요한복음 12:48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4 호크(חֹק) 주의 법, 주의 율법 ...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영원한 칙령(주로 대신 계명에 사용)

▶ 시편 119:5, 8, 12, 16, 23, 26, 33, 48, 54, 64, 68, 71, 80, 83, 112, 117, 118, 124, 135, 145, 155, 171 / **23회**

‘호크’는 ‘돌에 새기다’라는 뜻의 ‘하카크’(חָקַק)에서 유래하여(사 22:16, 겔 4:1) ‘확실한 것, 확고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단어는 말씀의 법적 구속력과 영원성을 강조합니다.

①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원성과 불변성, 절대성이 있습니다

이사야 30:8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히 있게 하라”

시편 2:7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119:26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② 반드시 지켜야하는 구속력을 가진 말씀

시편 119:83 “내가 연기 중의 가죽병 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요한복음 12:49-50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⁵⁰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5 다바르(דָּבָר) 주의 말씀 ...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말까지 내려오심

▶ 시편 119:9, 16, 17, 25, 28, 42, 43, 49, 57, 65, 74, 81, 89, 101, 105, 107, 114, 130, 139, 147, 160, 161, 169 / **23회**

① 영(생명)에서 생각, 생각에서 말, 말에서 글까지

요한복음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② 말씀 선포를 통하여 다시 글에서 영(생명)까지

요한계시록 19:11-16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 ¹³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¹⁴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¹⁵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6 픽쿠드(קִקּוּד) 주의 법도 ... 반드시 지켜야 할 법도 혹은 책임

▶ 시편 119:4, 15, 27, 40, 45, 56, 63, 69, 78, 87, 93, 94, 100, 104, 110, 128, 134, 141, 159, 168, 173 / 21회

① 말씀은 지켜야 하는 책임과 사명이 있음

시편 119:87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시편 119:45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② 생명을 바쳐서 책임을 완수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0:11-18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¹²삷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헤치느니라 ¹³달아나는 것은 저가 삷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¹⁴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¹⁵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¹⁶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¹⁷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¹⁸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0:24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7 미츠바(מִצְוָה) 주의 계명 ...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 시편 119:6, 10, 19, 21, 32, 35, 47, 48, 66, 73, 86, 96, 98, 115, 127, 131, 143, 151, 166, 172, 176 / 25회

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선포할 때 사용된 ‘차바’(צָוָה)

창세기 2:16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창세기 18:19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시편 105:8 “그는 그 언약 곧 천 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시편 119:6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②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영생’으로 아시고 온전히 지키심

요한복음 12:50[±]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빌립보서 2:6-8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⁷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⁸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요한복음 15:10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8 데레크(דֶרֶק) 주의 도, 주의 길 ...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길

▶ 시편 119:3, 14, 27, 30, 32. 33. 37 / 7회

① 말씀은 지식이 아닌 행함

이사야 48:17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야고보서 2:26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② 인생의 앞에 놓인 두 가지 길

예레미야 21:8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잠언 6:23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시 116:11, 행 2:28)

③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하나뿐인 참된 생명의 길

요한복음 14: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헤 호도스’, ἡ ὁδός)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18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9 이르라(אָמַר) 주의 말씀(약속) ... 일반적인 의미의 ‘말’

▶ 시편 119: 11, 38, 41, 50, 58, 67, 76, 82, 103, 116, 123, 133, 140, 148, 154, 158, 162, 170 / 19회

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이자 명령이며 약속

창세기 1:3, 6, 9, 11, 14, 20, 22, 24, 26, 28, 29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 창조 사역에 사용된 동사

창세기 2:16-17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 하나님의 명령에 사용된 동사

열왕기하 8:19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 하나님의 약속에 사용된 동사

②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

마태복음 24:35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1: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20:31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① ‘아만(אֱמֶת)에서 파생되어 말씀의 진실과 성실성을 의미

고린도후서 1:20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시편 119:90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시편 19:9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② 진리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불변의 말씀

시편 119:160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고린도후서 1:19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1:17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말라기 3:6 “나 여호와와는 변역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③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헤 알레테이아’, ἡ ἀλήθεια)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3:14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마태복음 5: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요한계시록 19:11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결론적으로, 열 말씀의 결론

1) 열 말씀은 십계명의 본질

십계명과 모든 율법은 인류에게 영원한 말씀으로 주신 만대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십계명과 모든 율법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진리의 규칙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질서와 법칙을 익히게 됩니다.

말씀의 열 가지 본질들은 십계명을 은혜로 지킬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요 생명력이요 본질이요 지침입니다. 열 가지 말씀의 본질들이 성도의 삶 가운데 가득할 때,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4:6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2) 열 말씀은 복의 본질

시편 119편에서 유일하게 122절만이 ‘말씀’과 연결된 단어가 없습니다. 이는 결코 시편 119편의 저자가 실수해서 빼먹은 것이 아닙니다. ‘눈’에서 유래한 ‘아인’(**אֵין**) 연에 포함된 122절에서 역설적으로 ‘말씀’과 연결된 단어를 보이지 않게 함으로서, 보이지 않는 말씀의 속성을 증거하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요 4:24, 딤편 1:17). 그 결론은 바로 ‘복’입니다.

시편 119:122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시편 119:122, 바른성경 “주님의 종에게 보증이 되시어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제하지 못하게 하소서.”

욥기 17:3 “청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주 외에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리이까”

이사야 38:14 “나는 제비 같이, 학 같이 지저귀며 비둘기 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히브리서 7:22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시편 133:3 “혈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니 곧 영생이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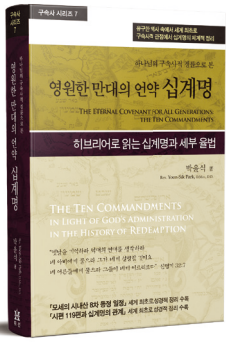
3) 열 말씀은 하나님께 가는 이정표

요한복음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6:63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강의 3 | 변제준 목사

만대의 언약 십계명 - ①대신 계명

출애굽기 20:1-11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²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³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⁴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⁵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⁶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⁷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⁸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⁹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¹⁰제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¹¹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신명기 5:6-12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⁷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⁸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⁹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¹⁰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¹¹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¹²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출 20:3, 신 5:7
-------------	-------------------------------------	------------------

1. 제1계명의 해석

(1) 너는(?) ...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함을 받은 자(출 20:2, 신 5:6).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야 하는 개인

(2) 나 외에는(עַל-פְּנֵי) ... ‘내 앞에, 내 면전에’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지만 참 하나님은 오직 한분이십니다(신 4:35, 왕상 8:60, 사 44:6, 8, 고전 8:5-6, 딤후전 2:5).

① 다른 존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사 46:5, 막 12:28-30).

하나님은 독점적인 사랑, 빈틈없는 사랑을 요구하신다(마 6:24, 눅 16:13).

②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영원히 믿고 섬기라는 뜻이다(시 90:1-2, 사 44:6-11, 24, 45:5-6).

- ③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첫째가 되시는 분이라는 뜻이다(롬 11:36, 고전 10:31, 사 42:8, 48:11).
- ④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성을 믿으라는 뜻이다(요 14:6, 17:3, 고전 8:6).

(3) 다른 신들(אלהים אחרים)

-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레 17:7, 수 24:14, 겔 20:7-9)
- 가나안 우상들
- 이방신들, 거짓신들(출 23:13, 신 6:14, 8:19)
- 권력(렘 5:31), 명예(요 12:43), 쾌락(딤후 3:4), 사람(사 2:22, 렘 17:5), 탐심(골 3:5), 자기 자신(요 12:25, 딤후 3:2)
- 이스라엘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사 37:16, 막 12:29, 요 5:44, 17:3)
- 이스라엘 하나님은 신의 신, 주의 주(신 10:17), 이방신과 비교할 수 없는 분(사 37:16, 40:18, 25-26, 46:5, 막 12:29)

(4) 있게 말지니라(לֹא יִהְיֶה) ... 절대금지 명령

- 제1계명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계약 위반(창 9:11, 15, 사 42:8, 43:7)
- ↳ 다른 신들이 있어서는 안된다(사 43:10-12, 44:6, 8, 45:14, 18, 21-22, 46:9).
- 다른 신들을 두는 것은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 사라지는 것.

2. 제1계명의 세부 율법

(1)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방법과 축복(출 22:29-31, 23:13-19, 24-33)

- ① 첫 아들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치라(출 22:29-30).
- ②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지라(출 22:31).
- ③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출 23:13-19).
- ④ 가나안 정복 약속과 그곳에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출 23:24-33)
 - 양식과 물에 복을 주겠다(출 23:25-26)
 - 하나님의 위엄을 앞서 보내겠다(출 23:27)
 - 왕벌을 보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겠다(수 23:28, 신 7:20, 수 24:12).
 - 가나안 족속을 조금씩 쫓아내겠다(출 23:29-30)
 - 하나님이 정하신 땅의 경계의 복(출 23:31-33).

(2) 우상숭배에 대한 금지와 처벌 규정(출 22:18, 20, 신 6:14-15, 12:2-13:18, 18:9-14)

- ①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출 22:18, 신 18:9-14, 레 19:31, 20:6, 27, 신 18:20, 계 21:8)
- ②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출 22:20)
 - ↳ 멸할지니라 - ‘하람’(חָרָם) : 진멸하다, 철저히 파괴하다(신 7:1-2, 16, 수 6:21).
- ③ 우상 숭배 장소, 우상의 이름, 성읍, 우상 숭배자와 그 자녀와 생축을 진멸하라(신 12:2-3, 13:12-18).
- ④ 우상숭배는 탐구하지도 말고 흉내도 내지 말라(신 12:29-31).
- ⑤ 우상숭배를 유혹하는 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신 13:1-11, 17:1-7).
- ⑥ 식용 짐승 규례와 피의 식용 금지(신 12:15-16, 20-25)

(3) 주후 49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요긴한 일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행 15:20, 29, 21:25)

3. 예배의 대상에 대한 교훈

제1계명은 예배의 절대적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밖에 없음을 알려줍니다(왕하 17:35, 렘 25:6, 35:15).

(1) 추모(追慕) 예배와 추도(追悼) 예배는 심각한 우상입니다.

추모 예배 - 추석에 직계 조상을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예배,

추도 예배 - 사망한 날에 2대조까지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예배

① 추모 예배와 추도 예배는 그 동기와 목적이 천주교의 제례의식과도 같고 제사 풍습과도 사실상 동일하다(고전 10:20).

②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실상은 죽은 조상을 더욱 생각하면서 애도하는 것이다.

(2) 죽은 자는 하나님의 영역과 권세 아래 있다(욘 7:8-10, 10:21, 삼하 12:23, 눅 16:19-31, 레 19:28, 신 14:1, 왕상 18:28).

4. 제1계명을 범한 자의 최후

(1) 완고함으로 사신 우상에게 절한 사울 왕(삼상 15:22-23, 28장, 레 19:31, 20:6-7, 27, 신 18:11-12)

(2) 왕정시대의 대표적인 우상 숭배자, 여로보암 왕(왕상 11:38, 12:22-33)

5. 제1계명의 구속사적 교훈

·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제1계명을 범함(창 2:17, 창 3:1-7).

· 아담은 뱀의 말을 들음으로 뱀을 자신의 새로운 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 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도 우상 숭배를 한 것(요 6:41-42, 7:25-27, 8:42-44, 56-59).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것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1. 제2계명의 해석

제2계명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다.

(1) 새긴 우상과 형상(לְפָנָי וְלְפָנֶיךָ)

- 새긴 우상 - ‘페셀’(פֶּסֶל) : 거짓 신들을 나타내는 형상이나 모양
- 형상 - ‘테무나’(תְּמוּנָה) : 피조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닮은 물건

우상숭배의 이유 -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정의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입니다(사 44:18-20, 렘 10:14, 51:17, 롬 1:21-23).

첫째, 우상은 육안으로 볼 수 있고 감각에 호소하니 믿기 쉽다.

둘째, 화려한 의상에 미적 가치가 있다.

셋째, 우상에는 남신보다 주로 모신이 많은데, 이는 가족적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

넷째, 성육과 음탕으로 정육에 만족을 준다.

다섯째, 최상신의 속성과 기능을 신격화해서 그의 초월성이 없어지고 유한화된다.

여섯째, 비밀의식을 이용해서 신비에 호소한다.

일곱째, 수확, 우양, 기후, 자녀 등이 잘된다고 한다.

①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형상화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영으로서 어떤 형상으로도 나타낼 수 없는 무형의 실체이십니다(요 4:24, 마 5:8).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아무 형상도 보여 주시지 않으셨습니다(출 20:22-23, 신 4:15). 하나님이 좌정하신 두 그룹사이도 텅빈 공간에 불과합니다(삼상 4:4, 삼하 6:2, 시 99:1, 사 37:16, 출 25:22, 민 7:89).

피조물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하나님을 피조물화하는 큰 범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두고 오로지 간직하고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외형적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뿐입니다. 언약의 말씀만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연결해 줍니다.

② 섬길 대상으로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든, 소나 고양이나 개구리 같은 동물이든, 사람이 만든 수공물이든, 그것을 신으로 숭배하면 우상이 됩니다(레 26:1, 대하 33:7, 사 44:15, 17, 계 9:20).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면 결국 속히 망하게 됩니다(신 4:23-26).

어떤 신의 형상이든 모든 우상은 인간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무가치한 것(אֵילִיל)으로 ‘헛 것’(레 19:4), ‘허무한 것’(시 97:7), ‘허탄한 것’(렘 14:14)이다(대상 16:26, 고전 8:4, 사 41:21-24). 우상은 결국에는 굴러서 사라질 존재입니다(렘 50:2).

(2)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① 만들지 말라 - '아사'(אֲסָא)의 칼(기본형)

우상을 만드는 자는 우상과 같이 됨(시 115:8, 135:18, 사 40:19-20).

② 절하지 말며 - '샤하'(שָׁחָ)의 히트파엘(재귀)형

완전히 복종하는 자세로 허리를 굽혀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행위(출 34:8).

③ 섬기지 말라 - '아바드'(אָבָד)의 호팔(사역수동)형

자신의 자유의지를 상실하고 완전히 우상의 노예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섬기도록 시킴을 받는 상태

(3)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 질투하는 - '카나'(כָּנָן) : 질투심이 많은, 불타오르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은 마치 혼인한 부부 관계와 같습니다(렘 3:14, 31:32, 호 2:19-20).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신 4:24).

① 긍정적 의미로 질투는 사랑의 집중입니다(사 62:4, 호 3:1-3, 사 42:13, 슥 2:8).

② 부정적 의미로 질투는 모욕당한 사랑에 대한 분노입니다(아 8:6, 렘 3:14, 31:32, 호 2:19-20).

(4)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 미워하는 자 - '사네'(שָׂנֵא) : 증오하다, 혐오하다, 싫어하다.

하나님께서서는 자기 백성이 다른 신에게 절하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하나님께 대한 증오와 혐오로 간주하십니다(민 14:18, 수 24:20, 신 4:25-26, 27:15, 사 42:17, 44:9-11)

· 갚되 - '파카드'(פָּקַד) : 우상숭배자를 찾아가서 반드시 심판하신다(수 24:20).

(5)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 천대까지 - 영원까지

· 은혜(חֶסֶד) -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언약적 사랑과 끊임없는 자비(요 14:15, 21, 요일 5:3).

2. 제2계명의 세부 율법

(1) 제단과 관련된 규정(출 20:22-26)

① 토단을 쌓고

②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출 20:25, 수 8:30-31, 왕상 18:30-32).

③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출 20:26, 28:42)

(2)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우상(신 6:10-7:26, 7:25-26, 16:21-22)

3. 예배에 대한 교훈

제2계명은 예배 방법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되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구하여야 합니다.

제2계명은 하나님의 신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요 4:24).

요한복음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4. 제2계명을 범한 자의 최후

바벨론이 많은 열방을 손에 넣고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자(합 1:10), 극도로 교만해진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한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으로 그앞에 절하게 하였습니다(단 3:1-7). 그러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단 3:24-27).

느부갓네살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나(단 4:1-3), 후에 다시 교만하여져 왕위에서 쫓겨나 7년간 광인이 되어 짐승같이 사는 저주를 받았습니다(단 4:31-33). 느부갓네살이 세운 바벨론은 결국 주전 539년 건국 66년만에 망하고 말았습니다(단5장)

5. 제2계명의 구속사적 교훈

(1)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제2계명을 범하였습니다.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는 여자에게 우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2)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우상숭배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며(골 3:5-6),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고(계 21:8),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려져 성밖에 있게 됩니다(계 22:15).

(3)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요 1:18).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확실한 형상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요 1:14, 고후 4:4, 히 1:2-3, 요 8:19, 14:9).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골 3:9-10).

1. 제3계명의 해석

(1) 이름(ִּשְׁמִי)

이름은 그 이름을 소유한 자의 존재를 나타내며, 본질과 성품을 내포합니다(시 102:12, 135:13).
하나님의 이름에는 최고의 명예와 권위와 존귀가 있습니다(잠 22:1, 사 55:13).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시며 아끼십니다(마 6:9-13, 겔 36:21-23).

(2) 여호와(יהוה), 읽을 때는 '아도나이'(אֲדֹנָי)라고 읽음

여호와란 이름은 이방 신들과 구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독점적으로 사용되었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출 3:14)라는 뜻입니다(창 21:33, 시 92:8, 사 33:5).

- ① 하나님께서는 한분이시며 유일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신 4:39, 6:4, 수 2:11, 사 42:5, 43:11, 45:5-6, 18, 21-22, 46:9, 60:16).
- ② 하나님께서 영원한 자존자이심을 뜻합니다(신 33:27, 시 90:2, 사 26:4, 41:4, 렘 10:10, 단 12:7)
- ③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나타냅니다(창 12:8, 13:4, 21:33).
- ④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나타냅니다(출 2:23-25, 3:7-10, 34:6, 신 4:31).

(3) 너의 하나님(יְיָ אֱלֹהֶיךָ)

- ① 전능하신 하나님(창 1:1, 35:11, 사 45:8)
- ② 경외의 하나님(창 22:12, 31:42, 53, 출 1:21, 레 19:14)
- ③ 삼위일체의 유일하신 하나님(창 1:26-27, 신 4:35, 6:4)

(4) 망령되이(לִשְׁמֵרָה)

→ 망령되이 - ‘샤베’(שָׁבַע): 무익한, 헛된, 거짓된, 가벼운, 경솔한
→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가볍게, 거짓되게 부르는 것.

- ① 하나님의 이름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 기도드리며 믿지 않는 것(말 2:2, 마 7:21-24)
- ②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거나, 불경건, 모독적으로 사용하는 것(말 1:6-7, 렘 7:4, 23:25, 36).
- ③ 모든 죄악된 저주, 맹세, 서원하는 것(레 24:11, 마 26:70, 72, 74, 슥 5:4, 삼하 15:7-10)

(5) 일컫지 말라(לֹא תִשָּׂא שְׁמִי)

→ 일컫지 - ‘티샤’(תִּישָׂא): ‘나사’(נָסָא), 뚝 들어올리다, 취하다)의 미완료형
→ 사적인 목적을 위해 여호와와 이름을 치켜 올리면서 계속 악용하는 것

(6)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לֹא תִשָּׂא שְׁמִי)

→ 죄없다 - ‘예나케’(יִנָּקֶה): ‘나카’(נָקָה), 뚝 무죄하다, 형벌이 없다)의 강조(피엘)형
→ 반드시 심판하겠다.

2. 제3계명의 세부 율법(출 20:24, 23:20-23, 신 14:1-21)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시 75:1, 겔 36:20-23, 신 28:58-61).

(1)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① 여호와와 이름을 기념하게 하신 성소(출 20:24)

성소(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신 12:5-7, 11-14, 21, 14:23-26, 16:2, 6, 11, 26:2, 왕상 8:17-20, 29, 9:3, 대하 7:16, 렘 7:30).

여호와와 이름을 성전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다는 확증이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레 19:30, 26:2).

② 여호와와 이름을 두신 여호와와 사자(출 23:20-23, 창 16:9-10, 왕하 19:35, 시 35:5-6, 91:11, 삿 13:21-22, 수 5:13-15, 사 63:8-9).

(2)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여호와와 성민(신 14:1-21)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은 먹는 것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3) 거짓 맹세에 대한 주의(레 19:12)

① 맹세의 의미

첫째, ‘쉐부아’(שְׁבוּעָה) - 맹약

쉐부아는 ‘일곱 번 말하다, 맹세하다’라는 뜻의 쇠바(שָׁבַע)에서 파생된 수동태 분사 여성형 명사. 7을 뜻하는 ‘쉐바’(שֶׁבַע)에서 유래(창 21:28-30, 수 9:20, 사 45:23, 겔 21:23).

둘째, ‘알라’(אָלָה)

‘맹세하다’(창 26:28, 신 29:13, 왕상 8:31, 겔 17:16-19), ‘저주하다’(사 24:6, 렘 23:10, 29:18, 스펀 5:3). ‘저주의 맹세’(אָלָהּ הָאֱלֹהִים)(민 5:21, 느 10:29, 단 9:11). 맹세를 어길 경우 저주가 뒤따른다.

② 맹세의 형태

불변의 진리나 권세, 자기보다 더 큰 권위(창 31:53, 삼하 21:7), 하늘(신 32:40, 단 12:7), 환도뼈(창 24:2, 9, 47:29), 쫓개고기 사이(렘 34:18). 여호와와 이름(출 22:11, 신 6:13, 10:20).

③ 외식적 맹세와 올바른 맹세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마 5:33-36) : 어떠한 맹세도 필요없을 만큼 그 말과 행위 자체가 진실하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마 5:37) : 진실 그대로 직접적으로 솔직하고 명쾌하게 답변하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실됨을 입증해야 할 때나, 하나님의 사람의 진실성을 변호할 때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숙히 맹세하는 것은 정당한 맹세입니다(롬 1:9, 고후 1:23, 갈 1:20).

3. 예배에 대한 교훈

제3계명은 예배를 드리는 정신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정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있습니다(시 34:3, 69:30, 벰전 2:12, 4:11, 계 4:8-11, 마 6:9).

4. 제3계명을 범한 자의 최후

사울 왕과 그의 가족들에 의한 기브온 학살 사건(삼하 21:1-14, 수 9:15, 18-21, 민 30:2)

5. 제3계명의 구속사적 교훈

- 아담은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은 없었습니다.
- 이스라엘은 십계명을 받은 지 얼마되지 않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습니다(민 14:3, 신 1:27).
- 예수님의 이름은 최고의 권세이며(빌 2:9-11),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마 1:21, 행 4:12),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습니다(요 20:31).
- 제3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큰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말 4:2).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출 20:8-11, 신 5:12-15
-------------	----------------------------	-------------------------

제4계명은 다른 계명을 잘 지켜지게 하는 신앙생활의 기초 원리요, 중심입니다.

1. 제4계명의 해석

(1)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זָכוֹר לְקַדְּשׁוֹ, '자코르 레카뎃소')

- 기억하여 - ‘자코르’(זָכוֹר) : ‘자카르’(זָכַר)의 부정사 절대형, 명령형
- 반드시 기억하라, 언제나 유념해 두라, 깊이 뚫으라, 마음 깊은 곳에 되새기라.

안식일은 항상 성도의 마음 한 가운데에 깊은 감동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 날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대요리문답 제121문)

- ① 그날을 기억함으로 큰 이익이 있다.
- ② 그날들을 지켜서 다른 계명들을 더 잘 지킬 수 있으며(겔 20:12, 20), 창조와 구속의 진리를 감사하여 계속 기억할 수 있다(창 2:2-3, 히 4:9-11).
- ③ 그날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이다(민 15:37-40)

→ 기록히 - ‘레카덱소’(לְקַדְּשׁוֹ) : 그것을 기록하게 하기 위하여
 ‘카다쉬’(קָדַשׁ)(기록하다, 구별하여 드리다)의 피엘(강조) 부정사 연계형

안식일은 다른 부정한 것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날, 성별된 날, 특별한 목적으로 다른 날과 구별하여 따로 떼어 놓은 날, 으뜸가는 날, 귀중한 날, 영광의 날입니다.

신명기 5:12 “지켜 기록하게 하라”(לְקַדְּשׁוֹ שְׁמִרָה) → **기록한 날로 지키라**

(2) 옛새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 힘써 - ‘타아보드’(תַּעֲבֹד) : ‘아바드’(עָבַד, ʾʿšmʾ, ʾʿšmʾ)의 미완료형
 → 행할 것이나 - ‘베아시타’(תַּעֲשֶׂה) : ‘아사’(עָשָׂה) : 일하다, 생산하다
 → **옛새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라(창 2:15, 출 23:12, 살후 3:10).**

옛새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노동과 사명 감당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만이 안식일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출 23:12, 31:15, 레 23:3).

(3)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안식일인즉

→ 여호와와의(לַיהוָה) : 여호와와의(소유격), 여호와를 향한(방향)

- ① 여호와와의 안식일 - 안식일은 하나님께 속한 날로 하나님께 구별해서 바치는 날(출 31:13, 레 19:3, 30, 26:2, 사 56:4, 겔 20:12-13).
- ② 여호와를 향한 안식일 - 안식일은 하나님만을 향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날.

(4)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① 너	② 네 아들	③ 네 딸	④ 네 남종	⑤ 네 여종	⑥ 네 육축	⑦ 네 문안에 유하는 객
-----	--------	-------	--------	--------	--------	---------------

(5)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특별한 안식일’(출 35:2), ‘설 안식일’(레 23:3, 32), ‘큰 안식일’(출 31:15, 레 16:31) :

→ ‘삼바트 삼바톤’(שַׁבָּת שַׁבָּתוֹן, 출 35:2) : ‘철저히 쉬어야 하는 안식일’(공동번역), ‘주께 바친 완전히 쉬는 안식일’(표준새번역), ‘철저하게 쉬는 안식일’(RSV), ‘완벽한 휴식의 안식일’(NASB)

2. 제4계명의 세부 율법(출 21:1-11, 23:10-12, 신 15:1-16:17)

→ 안식일 규례의 확장

안식년 규례	면제년 규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출 21:1-2, 23:10-12	신 15:1-11	신 16:1-8	신 16:9-12	신 16:13-17

(1) 안식일 규례

- ①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레 23:32).
- ② 옛새동안 힘써 일해야 한다(출 20:9, 신 5:13).
- ③ 아무리 추워도 나무를 하러 가서는 안된다(민 15:32-36)
- ④ 모든 처소에서 불을 피워서 안된다(출 35:3.)
- ⑤ 무역하지 못한다(느 13:15-21).
- ⑥ 사고팔지 못한다(느 10:31, 암 8:5-6).
- ⑦ 술틀을 밟는 것과 물건 운반을 금한다(느 13:15, 렘 17:21-22).
- ⑧ 밭을 갈 때 거둬 때에도 쉬어야 한다(출 34:21).
- ⑨ 일정 거리 이상 움직이면 안된다(행 1:12).
- ⑩ 안식일에 바칠 제물이 지정되어 있다(민 28:9-10).

·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

- ① 하나님이 창조사역을 마치시고 지극히 흡족한 마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쉬셨기 때문입니다(창 2:1-3, 1:31).
- ②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엄청나게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 복되게 - ‘베라크’(בראכה) : ‘바라크’(ברכה, 뜻: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찬송하다)의 피엘형
- ③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성소를 공경하는 것입니다(레 19:30, 26:2).
- ④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땅에서 주인이 되며 세계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신 28:1-14).

(2) 안식년 규례(출 21:1-2, 23:10-12).

“제7년”(출 23:11, 느 10:31), “매 칠년 끝해”(신 15:1, 31:10), “면제년”(신 15:2, 9, 31:10).

- ① 제7년에는 땅을 쉬게 해야 한다(출 23:10-11, 레 25:1-7).
- ② 제7년에는 채무 변제를 유보해 주어야 한다(신 15:1-2, 느 10:31).
→ 면제(신 15:1) - ‘쉐미타’(שמיטה) : 중지, (일시적인)면제, 탕감
→ 탕감하리라(느 10:31) - ‘나타쉬’(נאטש) : 중지하다.
- ③ 제7년에는 히브리 종을 해방하여야 한다(출 21:2-6, 신 15:12-18).

(3) 희년 규례

→ 희년(שמיטה) - 양의 긴뿔로 만든 뿔 나팔(레 25:9-10).

- ① 희년에는 각각 자기 기업과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레 25:10).
- ② 땅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레 25:23-28).
- ③ 희년에는 가옥이 원주인에게 돌아가야 한다(레 25:33).
- ④ 희년에는 땅을 쉬게 해야 한다(레 25:11-12).

3. 예배에 대한 교훈

“세상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매주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그후로부터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는 매주 첫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이 날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문답

주일은 안식후 첫날로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마 28:1, 막 16:2, 눅 24:1, 행 20:7).

주일성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속에서 참 안식과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 구별된 거룩한 날, 복주신 날, 즐거운 날, 존귀한 날, 예배의 날입니다.

4. 제4계명을 범한 자의 최후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사형에 처해집니다(출 31:14, 민 15:32-36).

→ 더럽히다 - ‘메할렐레하’(מְהַלְלֵהָ) : ‘할랄’(חָלַל)의 강조(피엘)형으로 훼손시키다, 모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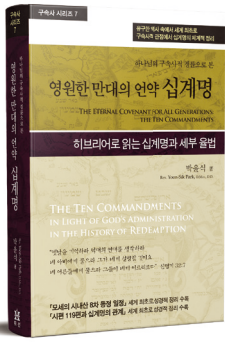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안식일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남 유다가 안식일을 범하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와 전과 왕궁, 귀인의 집까지 불사르게 하셨습니다(렘 17:19-27, 왕하 25:8-9, 대하 36:19, 렘 52:12-13). 이스라엘의 바벨론 유수는 안식일 계명을 범한 죄에 대한 징벌이었습니다(느 13:17-18).

5. 제4계명의 구속사적 교훈

- 아담이 안식하시는 하나님의 낮을 피하여 숨은 것은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도망친 것입니다(창 2:1-3, 3:8).
-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안식일에 대하여 철저한 훈련을 받고 축복을 보장받았지만(출 16:5, 22-30), 안식일에도 일하고 종들까지 일시키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노동을 금지하는 계명을 크나큰 짐으로 여겼습니다(레 26:35, 대하 36:21, 느 13:15-18, 암 8:4-6).
-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습니다(마 12:8, 막 2:28, 눅 6:5).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에 일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 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다(막 2:27, 3:4, 눅 6:9).
- ②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이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일할 수 있다(마 12:1-8).
- ③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아들도 당연히 일을 해야 한다(요 5:17).



만대의 언약 십계명 - ②대인(對人) 계명

출애굽기 20:12-17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¹³살인하지 말지니라 ¹⁴간음하지 말지니라 ¹⁵도적질하지말지니라 ¹⁶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¹⁷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마태복음 5:17-21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¹⁸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¹⁹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²⁰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낮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²¹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I. 십계명의 특징과 원리

(1) 십계명, 10개의 말씀들

‘10’이라는 숫자는 만수(滿數)로서 ‘부족함이 없이 꼭 필요한 만큼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하므로 10계명이 10개의 조항이라는 것은 10계명이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담고 있어서 ‘모든 법 위에 절대 우위의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십계명을 두신 장소, 지성소 안 언약계

- 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땅은 ‘세계의 중심’(겔 38:12)이요, 그 이스라엘의 중심은 성전이요,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요, 지성소의 중심은 언약계입니다. 이 언약계의 중심은 두 돌판이며 거기에는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10계명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 ② 그러므로 십계명은 성소의 중심이요, 이스라엘의 중심이며, 곧 세계의 중심이며, 더 나아가 우리 각자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 십계명은 신구약 모든 계시의 압축

- ① 예수님께서서는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신 6:5, 마 22:37)이며, 둘째 되는 계명은 “이웃 사랑”(레 19:18, 마 22:39)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② 이처럼 십계명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요약된 계시요, 신구약 성경의 압축입니다. 심장이 펌프질하여 온몸에 피를 돌려 생명을 공급해주듯 십계명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4) 십계명은 신구약의 ‘돌쩌귀’

- ① 구속사 시리즈의 저자이신 박윤식 목사님은 성경의 중심 내용은 십계명의 열 마디 말씀을 ‘돌쩌귀’ 삼아 움직이고 있다고 저자 서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 ② ‘돌쩌귀’는 문짝을 문설주에 달아 문을 여닫는 짝을 이루는 경첩, 혹은 기계나 구조물이 돌아가게 하는 연결부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십계명이 신구약 모든 말씀이 운행되게 하는 중심의 ‘돌쩌귀’라고 설파하신 것입니다.

II. 예수님의 십계명 인용

(1) 십계명은 에덴동산에서 아담이 범한 죄악 10가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아담이 범한 죄를 낱낱이 기록하신 것으로 십계명 속에는 타락한 세계를 본래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중대한 구속계획과 목적이 담겨있습니다.

(2) 예수님은 십계명을 재해석하고 그 의미를 확장하고 완성하심

- ① 타락한 세계를 회복하시러 오신 예수님은 십계명을 재해석하여 더 크고 깊은 의미로 확장해 주셨습니다(마 5:17-20).
- ② 산상수훈을 통해서 십계명을 재해석해주셨습니다(마 5:21-48).
- ③ 잘못 해석된 계명을 다시 해석해 주셨습니다(마 15:1-20, 19:1-12, 16-30, 22:34-40, 눅 10:25-37, 12:13-21)

III. 6가지 대인(對人) 계명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출 20:12,
신 5:16

출애굽기 20: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16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1. 제5계명의 해석

(1) 약속 있는 첫 계명(엡6:2)

‘효(孝)’는 ‘늙을 노(老)’ 밑에 ‘아들 자(子)’를 넣어 ‘늙은 부모를 떠받들고 정성껏 섬겨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일’입니다. 제5계명이 대인계명의 첫 번째인 것은, ‘부모 공경이 대인계명 중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요, ‘불효의 죄는 모든 죄의 근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2) "네 부모"의 범위

① 가정의 최고 권위자인 부모(출 21:15-17, 신 21:18-21, 27:16, 잠 30:17)

② 사회적 권위를 가진 지도자들

- 어른들(신 32:7, 욥 12:12)
- 상관(엡 6:5-7, 골 3:22-23)
- 국가의 관원들(롬 13:1-2, 벧전 2:13-14)
- 형제(롬 12:10, 빌 2:2-3)
- 성직자(갈 6:6, 히 13:17)

③ 가장 절대 권위를 지닌 부모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 32:6, 시 68:5, 89:26, 사 9:6, 63:16, 64:8, 렘 3:4,19, 말 2:10)

(3)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히브리어 ‘카베드(קָבַד)’의 강조형으로 ‘무겁게 대하라’는 의미로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께 하듯 극진히 섬기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을 존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원동력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골 3:20).

2. 제5계명의 복음적 확대

(1) 고르반(마 15:5-6, 막 7:11-13)

‘고르반’(κορβάν)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따로 떼어 둔 헌물’인데 유대인들은 부모를 봉양할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고르반’이라고 선언하여 부모님을 부양하는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고르반이라는 사람의 유전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고 책망하셨습니다(막 7:8-10).

(2) 영생을 소원한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영생을 얻기를 소원하고 예수께 나온 부자 청년에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19:17). 하나님께서 천륜으로 주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제5계명의 구속사적 교훈

(1) 아담은 에덴동산에서 제5계명을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부모처럼 말씀을 가르치시고 행위 언약을 체결하였지만(창 2:15-17) 아담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므로 불효하여 에덴동산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창 3:23-24).

(2) 예수님께서서 올바른 효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 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요 19:26)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자관계를 넘어서 여자(죄인)와 속죄주로서의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맺으신 최대의 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구원의 반열에 세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효도입니다.

②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시므로 최고의 효를 바치셨습니다 (요 12:50, 빌 2:6-8, 히 5:7-8).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셨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습니다(눅 22:39-46).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출 20:13,
신 5:17

1. 제6계명의 해석

(1) 생명의 가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창 1:26-27)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 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요일 2:25). 이러한 존귀한 생명을 살상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정면으로 도전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시 9:12, 왕하 24:2).

(2) 살인하지 말라

① 남의 생명을 살해하지 말라

- 손으로 죽이는 것(삼하 3:27, 18:14, 20:10)
- 마음으로 죽이는 것: 형제를 미워함(요일 3:15)
- 혀로 죽이는 것: 거짓 증언(마 26:59-62, 약 3:8)
- 붓으로 죽이는 것: 글로 죽이는 것(삼하 11:14-17)
- 음모로 죽이는 것(삼상 18:17, 왕상 21:1-16, 마 2:16)
- 남을 죽이는 데 동의해서 죽이는 것(행 7:54-8:1)
- 권세로 죽이는 것(눅 23:22-25, 요 19:10-16)
- 무정함으로 죽이는 것(눅 10:30-32)
- 낙태시켜 죽이는 것(출 21:22-25)

② 자기 생명을 살해하지 말라

- 간접적인 자기 살해: 근심과 걱정과 염려(고후 7:10), 시기(잠 14:30, 마 27:18)
- 직접적인 자기 살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죄(참고-마 27:3-5)

2. 살인 개념의 복음적 확대

(1)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인의 종류(마 5:21-22)

① 형제에게 노하는 것

‘노하는’의 헬라어 ‘오르기조’(ὀργίζω)는 ‘악의를 가지고 남을 해치고자 하는 지속적인 분노’를 가리킵니다. 미움이나 분노는 살인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움은 그 자체로 남을 죽이는 살인죄에 해당됩니다(요일 3:15).

② 인격을 모독하는 말

‘라가’는 헬라어 ‘라카’(ῥακά)로 ‘멍청한 자, 머리가 텅 빈 자’라는 욕설로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고 ‘말로써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시 59:7, 잠 12:18, 15:23, 16:27, 약 3:6-8).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심판을 받습니다(마 12:36-37).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혀를 금해야 합니다(시 34:12-13, 벧전 3:10).

③ 하나님 자리에서 정죄하는 것

‘미련한 놈’의 헬라어 ‘모로스’(μωρός)는 ‘신앙심이 없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남의 믿음을 함부로 정죄하는 것은 살인죄가 될 수 있습니다(약 4:11-12).

3. 구속사적 교훈

아담이 행위언약을 어기므로 온 인류에게 사망이 찾아왔습니다(창 2:17, 롬 5:12).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 7:19, 8:37). 결국 마귀의 조종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요 8:44).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출 20:14,
신 5:18

1. 제7계명의 해석

(1) '본래'의 아내와 남편

간음은 정상적인 결혼관계를 파괴하고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므로 하나님께 대한 무서운 범죄 행위입니다(창 39:9, 욥 31:11-12).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창 2:24, 마 19:6).

(2) 간음의 정의

① 결혼한 부부가 다른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레 20:10, 렘 29:23, 호 4:13-14)

② 언약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렘 3:6-9, 겔 23:36-37)

하나님과 언약백성 사이를 ‘부부관계’로 비유하므로(사 54:1-8, 겔 16,23장) 우상을 섬기는 것은 신랑(남편) 되신 하나님에 대한 간음죄를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2. 간음 개념의 복음적 확대

(1) 마음속에 품은 음욕

예수님은 마음속의 음욕, 즉 간음의 동기를 제거하지 않는 한 누구든지 간음죄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음죄를 짓지 않는 최선책은 요셉처럼 성적인 유혹의 상황을 피하는 것입니다(창 39:7-12, 고전 6:18).

(2) 잘못된 이혼(가정 파괴)

예수님은 잘못된 이혼 역시 간음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상대방이 음행하지도 않았는데 이혼하는 것은 이혼당한 여자나 그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 모두를 간음하는 자로 만드는 큰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마 5:31-32).

3. 구속사적 교훈

(1) 아담이 범한 제7계명

아담과 여자는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영적인 간음에 해당됩니다(약 4:4).

(2) 영적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오셨으며(마 9:15, 요 3:28-29) 또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성도를 신부로 말씀하셨습니다(마 25:1-13, 엡 5:31-33, 계 19:7-8). 그러므로 신랑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간음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출 20:15,
신 5:19

1. 제8계명에 대한 해석

(1) 도적질

도적질은 이웃의 소유를 주인의 허락이 없이 권한이 없는 자가 가져가는 일체의 행동을 말합니다(출 22:1-15). 이웃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명령이며,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웃의 생명과 복지를 빼앗는 것까지 모두 포함하는 명령입니다.

2. 도적질 개념의 복음적 확대

(1) 말씀을 도적질해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 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참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마치 자기가 받은 것처럼 속이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하였습니다(렘 23:30-32).

(2) 마음을 도적질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철저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다윗 왕에게 가야 할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 돌렸으니 이것이 마음을 도적질하는 죄가 된 것입니다(삼하 15:2-6).

(3) 시간을 도적질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시간을 낭비하고 헛되이 보내는 것은 시간을 도적질 하는 죄가 됩니다(엡 5:16). 시간을 도적질하여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마 24:42-44).

(4) 헌물과 십일조를 도적질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자신의 것인 줄 착각하고 물질을 드리는 감사에 인색한 것(말 3:8), 또한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물건을 도적질한 죄가 됩니다(말 3:10).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는 반드시 큰 심판을 받습니다(말 3:9).

3. 제8계명의 구속사적 교훈

(1) 아담이 범한 제8계명

아담과 여자는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말았습니다(창 2:17). 그들의 도적질은 전 인류를 사망으로 몰고 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빼앗은 가장 큰 도적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2)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하여 예수님을 죽인 종교지도자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여 예수님을 죽이도록 만들었습니다(막 15:6-10). 오늘날도 교인들의 마음을 도적질하여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짓 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입니다(마 23:13).

제9계명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출 20:16, 신 5:20
-------------	---------------------------------	--------------------

1. 제9계명의 해석

(1) '말'과 '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의 혀의 말을 통해 그 입술의 열매인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인데(사 43:21), 사람은 많은 죄를 내었고(전 7:29) 혀를 잘못 써서 온 몸을 더럽히는 지옥불이 되게 하였습니다(약 3:6).

(2) '거짓 증거'

① ‘거짓’은 ‘사실과 어긋나게 말하거나 사실처럼 꾸미는 것’(잠 25:18, 사 5:23)

② 모든 거짓의 아버지는 ‘중상자 마귀’

‘중상’(中傷)은 마귀의 짓인데(요 8:44) ‘마귀’의 헬라어는 ‘디아볼로스’(διάβολος)로 ‘고소자, 비난을 많이 하는 자, 거짓되이 비방하는 자, 입이 험한 자’라는 뜻입니다.

③ 거짓 증거를 물리치는 비결

모든 거짓말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진실, 곧 정직입니다.

잠언 11:3, 공동번역 “정직한 사람은 바르게 살아 앞길이 열리지만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제 꾀에 넘어진다”

2. 거짓 증거의 개념에 대한 복음적 확대

종말에 적그리스도는 참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을 좇도록 유혹하여 그것을 믿는 자도 심판을 받고 자신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거짓 증거’ 가운데 최악의 거짓은 다른 복음을 통해 ‘거짓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마 24:23-24, 살후 2:11-12).

3. 제9계명의 구속사적 교훈

(1) 아담과 여자가 범한 제9계명

여자는 뱀에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거짓말하였고(창 3:3), 뱀도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창 3:4)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3에서 말씀한 뱀의 ‘간계’는 헬라어 ‘파누르기아’(πανουργία)로 ‘간사함, 거짓 지혜’를 뜻합니다.

(2) 거짓말하는 자들의 최후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며(계 21:8) 거짓말하는 자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계 21:27, 22:15). 그러나 시온 산에 선 144,000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계 14:1,5). 거짓은 망하고 진실은 승리합니다(계17:14).

제10계명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출 20:17,
신 5:21

1. 제10계명의 해석

(1) ‘탐내지 말지니라’

① 외적인 탐심과 내적인 탐심

출애굽기 20:17의 ‘탐내다’의 히브리어 ‘하마드’(חָמַד)는 ‘외부에 있는 것을 보고 감정의 충동을 일으켜 탐을 내는 행위’를 가리키며, 신명기 5:21의 ‘탐내다’의 히브리어 ‘아바’(אָבָה)는 ‘마음속에 있는 욕망 때문에 생기는 탐심’을 가리킵니다.

② 탐심의 탈(살전 2:5)

신앙인들도 마음속에서 일어난 탐심은 죄로 여기지 않고 회개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탐심’은 위장을 잘해서 누구나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마 23:25-28).

③ 모든 계명의 마지막 결론

예수님께서도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눅 12:1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바울은 탐심을 우상숭배와 같다고 하였습니다(엡 5:5, 골 3:5). 그래서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죄이기 때문에 마지막 계명으로 끝맺음을 잘 해야 모든 계명을 지킨 것이 됩니다.

2. 탐심 개념의 복음적 확대

(1)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눅 12:13-15)

15절의 ‘탐심’은 헬라어 ‘플레오넥시아’(πλεονεξία)로 ‘더 가지려는 욕심, 분에 넘치도록 더 가지려는 탐욕’을 뜻하며 ‘물리치라’의 헬라어 ‘필랏소’(φυλάσσω)는 ‘지키다, 보호하다’라는 뜻으로 ‘모든 종류의 과도한 탐심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2) 자족(自足)과 지족(知足)

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빌 4:18)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에게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시 23:1)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며 살 때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② 잠시 받는 가벼운 환란(고후 4:17)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일체의 비결’은 부요할 때가 아니라 가장 궁핍할 때였으며 건강할 때가 아니라 체력적으로 가장 크게 한계를 느낄 때였습니다(고후 11:23-27). 이러한 놀라운 신앙관을 가진 자만이 어떤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③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후 6:10)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신앙관(고후 12:10)을 가진 것은 예수 안에 감추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얻었기 때문입니다(골 2:2-3). 그 결과 그는 자족과 지족의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빌 4:13).

3. 제10계명의 구속사적 교훈

(1) 아담과 여자가 범한 제10계명

아담 부부의 탐욕(창 3:6)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질서를 무너뜨렸으며,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제10계명은 원죄의 뿌리가 탐심임을 보여줍니다.

(2)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의 탐욕(민 11:33-34)

그들은 시내 산에서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보내 주시고 다 씹히기 전에 탐욕을 낸 백성을 죽이시고 그곳의 이름을 ‘기브릇 핫다아와’(탐욕의 무덤)라고 불렀습니다.

(3)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눅 16:14, 20:47)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제사장들은 부정부패가 극심하여 극도로 타락하였습니다(마 23:25).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시기로 고소하였으며(마 27:18) 심한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살인자들이었습니다(사 56:11, 요 19:15-16).

(4) 탐욕의 종착역은 멸망(약 1:15)

오직 우리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한 일에 열심을 품고(엡 2:10, 딤후 2:14)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흠어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잠 3:27, 22:9). 그럴 때 장래에 참된 생명을 얻게 됩니다(딤후 6:18-19).

결론적으로, 십계명의 완성은 십자가의 사랑

(1) 하나님을 사랑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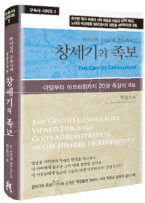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마 22:37).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무한하기 때문에 모든 마음과 성품과 힘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장 귀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바쳐 사랑해야 됩니다.

(2) 네 이웃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라”입니다(마 22:39).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며 척도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25:40).

인간의 힘과 의지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모든 계명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깨달아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최고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때(요 15:13, 요일 3:16)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십계명을 실천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갈 5:14).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베스트셀러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세계 최초로 밝히는 **박윤식 목사의 구속사 시리즈**



제1권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으로 본
창세기의 족보
아담부터아브라함까지
20개 족장의 족보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 아담과 9대손 라멕이 56년간 동시대 생존한 것을 성경적 체계화 정리
- 노아와 아브라함이 58년간 동시대 생존한 것을 성경적 체계화 정리



제2권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으로 본
햇불 언약과 그 성취
잊어버렸던 만남
출애굽과 광야 노정·햇불 언약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 광야 42회 진 친 장소의 지도화 및 구속사적 원어 정리
- 아브라함의 가계도 성경적 체계화 정리
- 햇불 언약의 성취 기간 '400년'과 대수(代數) '4대'의 관계 성경적 체계화 정리



제3권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I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역사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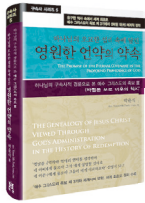
-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 시대별 정리
- 누가복음 족보 77명의 이름 원어적 정리
- 다윗의 도피 행로, 사사 시대의 연대기 성경적 체계화 정리



제4권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II
영원한 언약 속의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
열왕들의 역사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 3천년 만에 솔로몬 성전 건축 기간(약 6년 6개월) 성경적 체계화 정리
- 히브리 왕들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 구속사적 관점에서 연구



제5권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III
영원한 언약의 약속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 담긴
바벨론 포로 이후의 역사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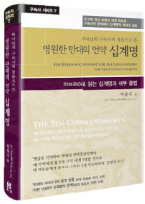
-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3기와 세계사의 변천 과정 성경적 체계화 정리, 도표화
-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3기의 빠진 부분 정리
-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3기 14대 인물의 구속사적 정리



제6권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으로 본
대제사장의 족보
영원한 대제사장
맹세 언약의
영원한 대제사장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 아론 이후 77대(代) 대제사장 체계적 정리
- 성경에 입각한 대제사장 예복 착용 모습 체계화 정리
- 77대(代) 유대 대제사장과 세계사의 변천 도표 성경적 체계화 정리



제7권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으로 본
영원한 만대의 언약 십계명
히브리어로 읽는 십계명과 세부 율법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 모세의 8차례 시내산 등정 과정과 날짜 및 오일 성경적 체계화 정리
- 시편 119편에 사용된 10가지 '말씀'과 관련된 단어 성경적 체계화 정리
- 구속사적 관점에서의 십계명 해석과 교훈 정리



제8권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으로 본
햇불 언약의 성취
10대 재앙과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입성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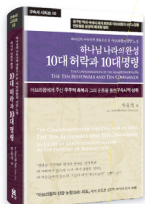
- 성경에 감추인 신묘한 '요일'의 계시 성경적 체계화 정리
- 애굽 10대 재앙과 광야 노정의 날짜별 체계화 정리
- 출애굽과 광야 노정 경로 성경적 체계화 정리



제9권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으로 본
신묘한 영광의 비밀 성막과 언약궤
성막과 언약궤의 세부 내용과 이동 역사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 원어에 입각한 성막과 그 기구 식양의 성경적 체계화 정리, 도록화
- 성막과 법궤(증거궤)의 분리와 이동의 역사, 경로 성경적 체계화 정리
- 성막을 세우는 순서의 성경적 체계화 정리



제10권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으로 본
하나님 나라의 완성 10대 허락과 10대 명령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 아브라함의 신앙 노정을 연도별로 성경적 체계화 정리
- 아브라함에게 주신 우주적 축복과 그의 순종을 통한 구속사적 성취
- 아브라함의 신앙 노정 지도 성경적 체계화 정리



제11권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으로 본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 에스겔에게 보여 주신 새 성전의 이상 성경적 체계화 정리
- 새 성전 그 속에 담긴 신비로운 구속 경륜
- 성경에 입각한 에스겔 성전 평면도 성경적 체계화 정리



제11권*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으로 본
스룹바벨 성전과 귀환자들의 성별된 족보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 스룹바벨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과정 성경적 체계화 정리
- 제1-3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의 족보에 담긴 신비로운 구속 경륜
- 42구역으로 나누어 충수된 12문 예루살렘 성벽 지도 세계 최초로 성경적 체계화 정리 수록

도서출판 **휘선** 휘선(暉宣)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빛이 전 세계 속에
흘러져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전파되기를 소원하는 이름입니다.

구입문의 | 02-2684-6082

구 입 처 | 교보 / 영풍 / 반디앤루니스 / 리브로 / YES24
인터파크 / 알라딘 / 대교리브로 / 이외 각종 기독교서점 등



대한예수교장로회
평강제일교회